

서운영의 '집과 사람'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금빌미녀를 한 손에 쥐고 고층 건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리메이크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장면이 빠지지 않는다. 1970년대 킹콩이 올라갔던 빌딩은 뉴욕 맨하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1937년 완공 당시 총 102층에 높이는 무려 443미터에 달하는 최고 높이의 빌딩이었다.

이렇듯 초고층 빌딩은 기술력을 과시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수단이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시카고,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에서 주로 지어지던 초고층 빌딩이 20세기 중후반부터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와 중동 지역 신흥국가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으로 높은 건물을 뽑자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빌딩(2010년 완공, 163층, 828미터),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 클락 로열타워(2012년, 120층, 601미터), 대만의 타이페이 101빌딩(2004년, 101층, 509미터),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 빌딩(2008년, 101층, 492미터), 홍콩의 인터내셔널 커머스센터 빌딩(2010년, 118층, 484미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빌딩 (1998년, 88층, 452미터) 등

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청계천의 삼일빌딩(1971년), 여의도의 육삼빌딩(1985) 등 31층과 63층의 높이를 자랑하기 위해 이름조차 삼일과 육삼으로 붙인 빌딩을 시작으로 강남대로 일대, 인천 송도 등지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00년 대부분은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주거용 건물도 초고층으로 짓는 추세며, 최근에는 잡설의 제2롯데월드(123층), 부산 해운대의 두산위즈더제니스(80층) 등이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그림자도 길어지듯이 초고층 건물들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변 건물들은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유통인구가 많아져 그 주변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건물을 높이 짓자면 우선 기초공사를 할 때 땅을 깊게 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반 약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개 높은 건물을 보면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만, 고층건물에서 위험한 것은 무너지는 것보다 흔들리는 것이다. 건물이 받는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수직력과 바람이나

지진 등으로 측면에서 받는 횡압력이 있는데, 건물이 높아질수록 횡압력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

쉬운 예로, 지나치게 길고 곧은 것은 부러지기 쉽다.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버드나무처럼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려야 하듯, 초고층 건물은 강풍이 불면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층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다. 영화 '타워링'(1977년 작)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예라 하겠다. 불이 나면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생각지도 못한 돌발행동을 하게 나 혹은 평상시의 익숙한 행동이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창문을 열고 무작정 뛰어내린다거나 평소 습관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를 시도하는 것인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공간은 화재 시에 골뎁의 역할을 하여 유독가스에 가장 취약하다. 불이 나면 우선 정전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하공에 멈추어 서고, 결국 엘리베이터 속 사람들은 하공에 고립된 채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지는 경

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고층 건물들은 화재시에도 작동하는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계단과 엘리베이터에는 기압을 높여 연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도시를 수직으로 세워 쌓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도시에서 각 집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소재(벽돌, 콘크리트 등)로 지어야 하며 또한 불이 나도 주위로 쉽게 번지지 않도록 각 건물들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 짓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초고층 건물에서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용 콘크리트의 사용 및 방화피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화재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큰 불도 실은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온도 감지 센서를 곳곳에 설치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앞서도 말한 바 있듯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는 법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린 초고층 건물의 시대, 그림자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면 최소한 열거라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건축칼럼니스트>

초고층 빌딩, 그 안전대책은 있는가?

社說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 지역 대표성 반영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의 갑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된다 해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의석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의원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선거구는 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보성 등 4곳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구간 경계조정과 지역간 통합이 이뤄지면 1~2곳 정도 선거구가 갑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광주·전남 선거구에 박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비례대표가

100석 안팎으로 늘게 되면 지역구가 크게 축소되고 인구가 적은 광주·전남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면 호남·제주는 현행 33석에서 34석으로 한 석이 늘어나는 반면 영남은 67석에서 78석으로 11석이나 증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감소는 정치적 역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전남은 선거구 대부분이 농어촌과 도농 복합지역이어서 대표성 약화라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군과 군, 시와 군을 붙이거나 떼어내 '누더기 선거구'를 만들고 선거 때마다 지역간 갈등만 유발해왔다.

따라서 지역을 비롯한 정치권은 인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 생활권, 역사·문화적 요인 등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 도농 복합 선거구제 등을 도입,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부패 척결에 한전 입찰비리도 포함시켜야

정부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그 성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불거져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전력 입찰비리도 고질적인 부패로 꼽히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의 입찰비리는 협력업체 직원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해 특정업체만 낙찰받도록 하는 식으로 자행됐다. 지난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낙찰받은 공사가 확인된 것만 133건에 2709억 원에 달했다. 광주지검의 수사로 뿌리깊은 병폐의 추악함이 드러나 연루자들은 지난달 기소됐다.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협력업체들은 '비리당어리'가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밝혀진 것 외에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고, 한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비리가 밝혀진 만큼 자신들을 차순위 낙찰자로 인정해주거나 재입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일부 업체는 한전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을 광주지 법에 제기했다. 교육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억울함이 이해가 간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경제 시스템의 올바른 가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제분야 곳곳에 퍼져있는 악성 비리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이번에 정치권력과 연계된 대형 비리만 겨냥한다면 정치적 사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막는 악성 비리도 함께 도려내야 한다. 정권마다 한바탕 치르는 통과 의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한전의 입찰비리도 예외없이 포함돼야 한다.

종교칼럼

세월호와 삼독(三毒)



원광 나주 원각사 주지

이달 초 8년 만에 찾아온 3월의 한파를 유난스레 떠드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구절이 이리 절절한 적이 없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오랑캐의 땅으로 억지 시집을 가야했던 왕소군에게는 봄이 와도 봄으로 느껴지지 않는 절절한 아픔이 있었습다. 다시 포근한 햇빛이 고개를 내밀며 완연한 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좀처럼 봄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성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슬픔이 아직도 진행중임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 16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이날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아직도 시신마저 찾지 못한 실종자가 9명이나 되고, 실종자 유가족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선체 인양 문제마저 이렇저런 이유로 자꾸만 미뤄지고 있으니, 비록 유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낯자일 뿐이지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한결같은 것은 않은지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의 도리가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를 먹으며 포식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희생자장을 어묵에 은유해 조롱하고, 심지어 뺨경이로까지 몰아가는 저 사람들이 작년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율먹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는지...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중생이 해탈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큰 번뇌가 있는데 이를 삼독(三毒)이라고 합니다. 탐·욕·진·에·우치를 줄여서 탐·진·치라고도 하며, 이 세 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해탈에 이르는 것은 여반장(如反掌), 즉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지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 중생이 가진 삼독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예도 드물다고 느껴집니다.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논의되자 윤리 도덕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념의 잣대와 그 해택에 대해 시키고 질투하고 성내게 되니 그것이 잘못된 탐냄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헤아리지 못

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가 세월이 지나가면 잊힐만한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안전에는 불감(不感)하고 내 한 몸의 이익에는 민감(敏感)한 현대의 중생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듯이, 나만의 이익을 헤아리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들어 내는 어리석음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의 번뇌가 갈바람처럼 피부에 와닿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봄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실종자 유가족 부녀가 팽목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삼보일배의 먼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야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과 벌써 노란 리본을 까마득한 옛 기억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중생에게도 봄은 아직도 요원(遙遠)한 일기만 하니 올해처럼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절절했던 적이 없었던 듯 합니다.

기 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금이 적기



황병룡 광주지법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소장

매년 대졸자들이 배출되지만 이들을 받아 줄 관공은 일자리를 찾는 일은 녹록지 않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규 채용규모를 줄이고, 기존의 인력도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가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 수년 동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문제'와 청년실업 지속 등 '괜찮은 일자리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시장의 제

도·관행이 부응하지 못해 나타난 현실과의 괴리이다. 임금체계는 대부분 연공급 위주여서 공정한 보상 문제가 있고, 또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60세 정년 의무화 등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으나 입법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적차)의 심화이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2014년 기준 607만70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간 구조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전망 부족이다.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가입률이 40%대로 낮고, 자영업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적용이 초기단계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

원 운용을 통해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능력중심의 개편,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과도한 휴일·연장근로 축소이다.

둘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여 규모를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등의 차별시정,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기간제·파견의 적정 사용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부과, 이른바 '조끼기계약' 관행 근절,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등이다.

셋째,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 추진,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이다.

넷째,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원정 대기업의 하청에 부당한 부

담전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법·지침 마련이다.

내년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모처럼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구조개선의 적기이다.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제도·관행을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에 어떤,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게 되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이며,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차별과 격차 없는 공동체를 물려 주어야 할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우리 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환경을 직시하여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취지와 시급성·내용을 공감하고 동참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과 고용률 70%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無等鼓

광주의 오래된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잊게 되는 글귀가 있다. 붉은 벽돌 벽에 걸린 액자에 담긴 글이다. 독특한 글씨체도 인상적이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배속에 밥이 적어야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선달 그름, 날마다 무지 무지하게 눈이 내려 쌓이는 슈류산방에서."

1995년 즈음, 강원도에 머물던 법정 스승님 주안장에게 직접

봄날의 법정 스님

를 받았고, 그 편에 스님이 주안장을 위한 글을 보냈다. 1979년, 책 '서 있는 사람들'을 읽고 인생의 스승을 만났다 생각했던 주인은 송광사 불일암으로 찾아가 첫만남을 가진 후 인연을 이어왔다. 며칠 전은 법정 스님의 입적 5주기였다. 본인이 창건했던 길상사에서 열린 추모 법회에서 스님이 생전에 남긴 육성 법문의 법상으로 소개됐다. 2009년 4월19일 영문이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각자 한 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이 어떤 꽃과 잎을 펼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는가?"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이 험난한 생을 살아오면서 가꿔온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보길 바랍니다."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피어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들길 바랍니다." 꽃피는 3월을 좋아했고, 갈 때는 봄에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편에 스님이 주안장을 위한 글을 보냈다. 1979년, 책 '서 있는 사람들'을 읽고 인생의 스승을 만났다 생각했던 주인은 송광사 불일암으로 찾아가 첫만남을 가진 후 인연을 이어왔다.

1995년 즈음, 강원도에 머물던 법정 스

를 받았고, 그 편에 스님이 주안장을 위

한 글을 보냈다. 1979년, 책 '서 있는 사

를 읽고 인생의 스승을 만났다 생각했

했던 주인은 송광사 불일암으로 찾아가

첫만남을 가진 후 인연을 이어왔다. 며

칠 전은 법정 스님의 입적 5주기였다. 본

인이 창건했던 길상사에서 열린 추모 법

회에서 스님이 생전에 남긴 육성 법문의

법상으로 소개됐다. 2009년 4월19일

영문이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

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